

오후 11시 영업제한... 알바생도 힘들다

PC방·노래방·유흥업소 아르바이트 수입 감소 “고용 불안 최고조... 일거리 줄면서 생계도 막막”

제주형 거리두기 1.5단계가 3주 더 연장되면서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등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내달 13일 24시까지 현행 거리두기 방침을 3주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로써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편,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오락실·멀티방에 내리친 오후 11시

영업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이에 이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속은 착잡하기만 하다. 오후 11시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야간시간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생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PC방에서 1년 넘게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모(31)씨는 “PC방 제한조치가 이뤄지면서 야간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됐다. 다행히 사장님이 저녁시간 아르바이트생과 시간을 조절해 근무시간을 보장받긴

했지만, 이마저도 평소의 반 정도밖에 안돼 월급도 줄어들었다”며 “이같은 조치가 지속적으로 연장된다면 아르바이트생의 고용 불안부터 생계까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다. 특히 유흥시설의 경우 저녁에 오픈을 하고 밤 늦게까지 장사를 하는 특성상 아르바이트생의 타격은 더 크다고 입을 모은다.

홀덤편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 쉬고 있는 A(33)씨는 “장사 특성상 밤에 열고 새벽까지 운영하기에 오후 11시 제한 조치는 막대한 타격이다. 사장님이 제한이 풀릴때까지만 쉬어달라는 부탁이 있어 현재 쉬

고 있다”며 “다음달 월세 등 필수 생계비 조차 걱정해야 할 처지여서 잠시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신애복 (사)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도 어렵지만 영업조치 제한으로 생계를 위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감된다”며 “영업제한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재연장 여부에 대해 앞으로 일주일간의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후 오는 28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강민성기자

비양도 도항선 ‘한지붕 두가족’

지법, 1선사 제기 공유수면 허가취소 소송 각하 법적 분쟁 매듭... 갈등뒤틀린 2개 선사 모두 운항

비양도 도항선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5일 비양도천년랜드(제1도항선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허가 취소가 요구된 장소는 비양도항 남쪽 선착장으로, 제2도항선사인 비양도해운과 비양도천년랜드가 함께 주민과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곳이다. 이로 인해 이번 소송에서 비양도천년랜드가 승소했을 경우 두 선사 모두 도항선을 운항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갈등이 장기화되자 제주시는 양쪽 선사에 내뿜던 선착장 사용 권한을 갱신하지 않는데 이어 지난해 5월부터는 행정선을 띄우기도 했다.

결과 두 선사는 비양도항 남쪽 선착장 공동 사용을 합의하는 것을 골자로 ‘상생 의견서’를 제출, 같은해 6월 19일부터 운항을 재개했지만, 이번 소송으로 인해 갈등의 불씨가 남았던 상황이었다.

비양도천년랜드 관계자는 “현재는 두 선사 모두가 도항선을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있다”며 “향후 법적인 분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오는 6월 16일 두 선사가 받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다”며 “만료 전까지 내부 논의 등을 거쳐 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양도 60여가구 중 주민 57가구를 주주로 둔 비양도천년랜드는 지난 2017년부터, 주민 7가구가 참여한 비양도해운은 지난해 11월부터 도항선 사업에 뛰어 들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하지만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비양도 도항선 관련 법적 분쟁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두 선사는 도항선 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심지어 지난해 4월에는 비양도천년랜드 측 해녀 12명이 해상에서 인간띠를 만들어 비양도해운 도항선의 진입을 막는 일까지 벌어진 바 있다.

제주대 입구 사거리 4중 추돌사고 국과수 “브레이크 결함 때문 아니다”

브레이크 공기압 정상 이하 압력상대서 운행중 사고 추정

제주대학교 사거리에서 발생한 4중 추돌사고 관련, 4.5t 트럭에서 브레이크 결함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국립과속안전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2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과수 제주출장소는 해당 트럭에서 브레이크 결함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회신했다.

대형 차량은 압력에 의해 조작되는 ‘에어브레이크’를 주로 사용한다. 에어브레이크는 압축공기만을 이용해 바퀴의 회전을 제동해 속도를 줄이는 장치다.

브레이크 공기압이 정상 범위에 있으면 강한 제동력을 얻지만, 정상 이하일 경우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국과수는 브레이크 공기압이 정상 이하의 압력인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운행기록계에 나타난 사고 당시 속도는 시속 60km 중반대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구간의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점을 들어 과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5·16도로는 경사가 가팔라 속도를 감속하기 위한 잦은 브레이크의 사용으로 제동력이 크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4.5t 트럭 운전자 A씨가 경찰 조사 당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경찰은 이날 국과수 감정 결과를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8일 오후 5시59분쯤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4.5t 트럭 운전자 A씨가 1t트럭과 버스 2대를 연이어 추돌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4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바람은 엄마가 막아줄게...” 미세먼지를 동반한 강한바람이 분 25일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 한 엄마가 모래바람속 아들을 감싸안고 걸어가고 있다. 강희민기자

“대선 1년 앞으로... 언론개혁 입법하라”

언론노조 등 125개 단체 ‘비상시국 선언’ 발표

“정부와 국회는 지난 4년 언론개혁 패배조차 못 세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2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편집권 독립 등을 담은 언론 개혁을 정부에 촉구했다.

언론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전국 125개 단체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통령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각 정당과 정치권의 모든 관심을 뺏아들일 블랙홀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면서 “(4년 전) 촛불을 들었던 광장은 그대로지만, 정부와 국회는 달라진 시민의 눈높이와 정치 수준에 맞는 또 다른 광장, 언론이라는 광장을 개혁할 패배조차 세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는 대선이 불려 올 정치의 시간을 다시 주권자의 시간으로 돌릴 것을 요구한다”며 “언론 노동자의 책임과 자유, 시민의 참여와 주권을 다시 세우게 가지 요구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공영 언론에 대한 기득권 완전한 포기, 자본과 권력이 아닌 시민이 언론에 의해 받은 피해를 배상할 법안 마련, 사주가 아닌 언론노동자들에게 편집권 독립 법 보장, 지역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시민이 참여할 지역언론 조성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시민의 힘을 빌어 만들어진 권력이 약속을 배반하고, 정치가 책임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다시 광장에 설 것”이라며 “그리고 우리는 차가운 분노로 그 때 그 겨울처럼 주권자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태윤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 재향군인회

나라사랑 농 그림공모전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의 건전한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마음을 높이고 순국선열과 호국영웅을 기억하고, 호국보훈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함.

◆ 주제 : 나라사랑 (유치부 : 자유화)

◆ 참가규격 : 1인 1작품

- ♣ 8절 : 유치부, 초등 1~3학년(저학년)
- ♣ 5절 : 초등 4~6학년(고학년)
- ♣ 4절 : 중등부, 고등부

· 필수 기재사항 : 작품 제목, 학교/학년/반, 이름,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집 주소, 연락처

◆ 접수(제출)방법 : 문의 ☎ 064-747-4605~4607

- ♣ 우편접수 : 6월 18일(금)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 접수는 기념품 미증정)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사무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66, 202호(아산프라자, 연동)
- ♣ 현장접수 :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또는 직접 제출(선택)
- 제출일시 : 2021년 6월 20일(일) 11:00 ~ 15:00
- 제출장소 : 제주시민복지타운광장 주차장내 접수처(2곳 설치)
- 그림 제출시 기념품 증정 : 선착순 500명

◆ 입상자 발표 : 2021년 6월 28일(월) 17:00

-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연합회(미술교육협의회)

◆ 유의사항

- 학지 접수(제출) 시 발열 체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함
-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의 유증상자분들은 방문 자제

구 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부상(상품권)
		저학년	고학년		
대 상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상 (1)	1	1	1	각150,000원
최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	2	1	1	각100,000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상	(1)	2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상	2	1	1	
우 수 상	제주지역 군 사령관 상	1	1	1	각50,000원
	해군 제7기동전단장 상	1	1	1	
	제주시 교육장 상	1	1	1	
	서귀포시 교육장 상	1	1	1	
장 려 상	도재향군인회장 상	약간명	약간명	약간명	각30,000원
	도학원연합회장 상	약간명	약간명	약간명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연합회(미술교육협의회)